



보도시점 2023. 11. 2.(목) 15:45 배포 2023. 11. 2.(목) 10:00

테러범의 항공기 납치, 공항시설 난입, 드론 공격 등 공항 테러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 완비!

- 김혁수 대테러센터장, '2023 국가 대테러종합훈련' 주관 -

- ◆ 드론·화생방 공격, 항공기 피랍 등 어떤 유형의 테러에도 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
- ◆ 대테러센터장은 대테러요원들에게 '국민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'라며 테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는 동시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 전달

□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11월 2일(목) 오후, 인천국제공항에서 「2023 국가 대테러종합훈련」을 주관하고 관계기관의 테러대비태세를 점검*했다.

* 대테러센터 설립 이후('16) 대테러특공대 합동 전술훈련(전반기),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(후반기) 등 年 2회 유관기관 통합 대테러훈련 개최

○ 이번 훈련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서 기획하고,

- 경찰청(인천경찰청, 인천공항경찰단, 인천경찰특공대), 국방부(707특수임무단, 17사단, 화생방방호사령부), 환경부(화학물질안전원), 국토교통부(서울지방항공청), 관세청(인천공항세관), 소방청(인천소방본부), 해양경찰청(중부지방해양경찰특공대), 국가정보원 등 12개 기관 300여명이 참가하여,
- ①화생방 공격 ②항공기 피랍 ③공항시설 테러범 난입 등 동시다발 복합테러에 대해 관계기관의 대테러 통합작전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,
- 최근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한 테러 상황을 상정하고, 이에 대한 탐지·차단 등 안티드론시스템을 점검했다.

- 이 자리에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위원, 대테러 인권보호관,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훈련 소과정을 참관했다.

□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훈련 강평에서

-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나라가 화생방 공격, 항공기 피랍 등 어떤 유형의 테러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가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으며,
- 이는 밤낮없이 헌신해온 대테러요원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.
- 앞으로도 대테러 관련 기관에서는 ‘국민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’라는 소임 아래 테러 예방과 대비태세 확립에 모든 역량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	책임자	부 장	최진영 (02-2100-2032)
		담당자	사무관	전지원 (02-2100-2034)

